

한국디자인DNA 심화연구

# 지리도

심화연구자 김 경 균(정보공학연구소)

CONTENTS

## 제1부 연구개요

- 1장 연구배경
- 2장 연구목적
- 3장 연구범위 및 방법
- 4장 연구내용

## 제2부 디자인 DNA 연구

- 1장 조선시대 이전의 지도 분류 및 특징
  - 1절 삼국시대의 지도
  - 2절 고려시대의 지도
- 2장 조선시대 지도의 시대적 분류와 디자인 유전자적 가치
  - 1절 혼일강리역대국지도
  - 2절 조선방역지도
  - 3절 동국지도
  - 4절 천하도
  - 5절 천상열차분야지도
  - 6절 도성도
  - 7절 수선전도
  - 8절 청구도
  - 9절 여지전도
  - 10절 대동여지도
  - 11절 지구전후도
  - 12절 정읍현 군현도
  - 13절 광주평장동도
  - 14절 울릉도외도

## 제3부 대표디자인

## 제4부 후기

■  
제 1부

연구개요

## 1장 연구배경

인류는 선사시대부터 자신의 주변 정보를 기록하고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도를 제작해왔다. 울산의 반구대 암각화에는 비록 정확한 지리 정보를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이 살고 있는 주변의 다양한 사냥감에 대한 정보와 그 사냥감이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다.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도 다양한 지도를 제작해 왔다는 기록이 남아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존하는 고지도는 대부분 조선시대에 제작된 것들이다. 이러한 고지도는 단순히 지형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과학과 사상에 예술적 표현을 잘 융합하여 자연, 사회, 문화, 역사적 맥락들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정보 디자인의 위대한 문화유산이라고 하겠다.

정보를 조직화하고 시각화하는 방식은 미디어의 변화와 그 성격에 맞춰 다양하게 접근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보의 성격에 적합한 효율적 인터페이스를 확보하려는 노력과 사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시도는 정보디자인 분야에도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의 지도 제작은 이러한 정보디자인의 장점이 고려되지 못한 채 단순히 지리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이 강하다. 특히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도표현이나 기호는 일제강점기의 것들과 한국전쟁 이후 미군에 의해 추가된 것들이 지금까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선조들의 훌륭한 지도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디자인의 유전자적 가치를 스스로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 차량에 탑재된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지리정보의 수요와 공급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렇게 지리정보를 전달하는 기술적 환경은 급격히 진화하고 있지만 그것을 조직화하고 시각화하는 정보 디자인 프로세스에 있어서는 안타까움이 많다.

우리 선조들은 땅에 내포되어 있는 이치를 이해하고 땅 그 자체를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로 받아들였기에 이 땅의 산하를 골격과 혈관으로 이해하고 그 맥락과 흐름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리정보를 받아들이는 수용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동서남북의 방향을 획일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매우 유연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정보에 대한 인식은 내비게이터를 비롯한 현재의 인터랙티브한 미디어 환경에서 그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 선조들의 지리정보의 집합체인 고지도를 통해 그 디자인적 유전자를 발굴하고 지금의 미디어 환경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

해 보고자 한다. 1)

## 2장 연구목적

지도란 공간의 재현이라는 기본적인 방법에 의해 표현된다. 그러나 이 재현의 대상은 실제 눈에 보이는 공간만이 아니라 그 시대적 공간 속에 내포된 보이지 않는 관계의 의미까지도 포함된다. 따라서 지도는 단순히 지형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맥락이 함축된 종합적 산물이다.

또한 지도에 표현된 그림이나 글자, 기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것을 읽어 나가는 순서가 일반적인 텍스트처럼 선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비선형적으로 서사된 요소를 연결하고 그 안에서 맥락을 찾아내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도를 읽는 사용자의 몫이다. 따라서 사용자, 즉 독해자 스스로가 이런 지도의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의미를 가진 정보의 구조가 아니라 해독할 수 없는 암호 덩어리로 전락하는 것이다. 따라서 때로는 지도는 과장과 외곡의 과정을 거쳐 권력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조작과 세뇌를 목적으로 한 지도라는 이름의 거짓말로 전락되기도 한다.

보르헤스의 〈과학의 정확성〉에는 제국의 지도를 제작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은 매우 정확한 지도를 만들기 위해 조금씩 더 큰 지도를 만들게 된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실제 그 나라와 똑같은 크기의 지도를 제작하여 그 제국은 지도에 의해 완전히 덮인다는 우화이다. 다시 말하자면 지도는 어떤 공간을 재현하는 것이지만 그 공간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편집에 의해 재현되는 것이다. 거기에는 제작자의 강한 의도가 개입되기도 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고려되기도 한다

따라서 고지도를 현재의 시각을 기준으로 공간의 재현이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가지고 그 우수성을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그 반대적인 측면에서 지도 표현의 예술적 아름다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도 지나치게 편중된 시각이라고 생각한다. 고지도는 우리 선조들의 남겨놓은 이 땅에 대한 소중한 지리정보이다. 고지도는 단순히 땅 위의 산

---

1) 한영우, 안휘준, 배우성(1999). 〈우리 옛지도와 그 아름다움〉. 서울: 효령출판. (2003). 4-5쪽 참조.

과 강이라는 자연적 요소들을 표현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인문적 문화자료를 복합적으로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실상을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지도는 항공측량을 기본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평면적이고 기호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고지도는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의 특징을 가장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다양한 시점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아 그 입체감이 잘 표현되어 있다.

또한 회화적인 표현과 기호적 표현을 적절하게 혼용하여 자연지리정보와 인문지리정보를 잘 융합하여 전달하고 있다. 이런 고지도의 시대적 유형별 특징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그 디자인 유전자적 가능성을 발굴함으로서 앞으로 지리정보 디자인 분야에서 그 활용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3장 연구범위 및 방법

오늘날 지도도 마찬가지지만 지도는 언제나 두 개의 선이 만나 생기는 하나님의 점에서 출발한다. 자신이 있는 위치를 먼저 판단하고 그 주변 정보와의 관계를 파악해 나가는 것이 바로 지도 제작의 시작인 것이다. 기원전 600년 경 고대 바빌로니아에서 점토판으로 제작된 지도를 보면 원형의 바빌로니아가 바다에 떠있고, 수도인 바빌론이 원의 중심에 놓여 있다. 이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세계의 중심에 위치한다는 자기중심적 세계관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sup>2)</sup>

이런 세계관은 자신과 세계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이원론적 사고에서 출발 하지만, 동양에서의 세계관은 자신과 세계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생각하는 일원론적 사고에서 시작한다. 인도 신화나 티벳 불교의 만다라는 이미 자기 (마이크로 코스모스)안에 세상만물(마크로 코스모스)이 담겨져 있다는 세계관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천체의 운행과 인간의 운명뿐만이 아니라 만물의 생성원리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용장한 지도라고 하겠다.

이처럼 나와 세계를 나타내는 지도는,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분명해지면서,

---

2) 피터 윌버, 마이클 버크(2000), 〈인포메이션 그래픽스〉, 김경균(역). 서울:디자인하우스, 2001, 174-176쪽 참조.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의 공유를 위한 정보가 아니라 통치나 지배를 목적으로 정보를 관리하게 된다. 이런 지배적 의도에 의해 제작된 지도는 오히려 정보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지도를 바라보는 관점은 시대적 상황이나 동양과 서양의 사상적 배경에 따라 매우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범위는 천원지방, 읍양오행 등 동양적 사고가 근간이 된 우리의 고지도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남아 있는 지도는 대부분 조선시대의 것이기 때문에 그 시대적 범위 또한 조선시대로 한정하고자 한다. 고지도의 종류는 그 제작 방법이나 시대에 따라 매우 다양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것을 디자인 유전자적 가능성으로 시점에서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분류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 1) 지도의 제작 목적에 따른 그래픽 디자인적 특징에 의한 구분
- 2) 그래픽 디자인 요소의 표현 방법에 의한 구분
- 3) 지도의 계통에 의한 구분
- 4) 지도의 제작 시기에 의한 구분

이런 분류 기준을 토대로 각 지도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 디자인 유전자적 가치를 도출한다.

## 4장 연구내용

서구에서 디자인이라는 개념은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초반에 걸쳐서 형성되었고, 디자이너라는 이름의 직업은 1930년대에 들어서 나타났다고 한다. 그러나 설명할 필요도 없이 ‘디자인하는 행위’는 동서를 막론하고 그 이전부터 있어 왔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오래된 디자인 행위의 대상은 바로 ‘정보’ 였을 것이다. 이런 디자인 행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정보에 형태를 부여하는 일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형태란 가시화되지 않은 정보를 시각화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언어에 형태를 부여하여 문자로 표현하거나, 다양한 지리 정보를 지도로 표현하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방법을 악보라는 기호로 표현하는 것이다.<sup>3)</sup>

---

3) 피터 윌버, 마이클 버크(2000), 〈인포메이션 그래픽스〉, 김경균(역), 서울:디자인하우스, 2001, 174-176쪽 참조.

이처럼 동굴 벽면에 그려진 그림지도에서부터 디지털 단말기에 나타나는 GPS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주어로 한 역사는 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정보를 시각화하는 행위로 계속 발달되어 왔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는 말처럼 이제 우리 사회 어느 곳이든 정보는 넘쳐흐르고 있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디자이너 스스로도 가치 있게 정보를 디자인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대체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고 있는 ‘정보’ , ‘정보화’는 무엇을 의미하며 우리가 디자인하고 있는 ‘정보’의 실체는 무엇인가? 오늘날 정보는 고도 통신 기술을 동반한 글로벌 네트워크 주변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듯하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을 통해 형성된 정보의 관계(context)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행위만을 ‘정보화’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보는 이미 생명의 탄생 이전부터 존재해 왔고, 생명은 이 정보를 보호하고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유전자의 형태로 간직하게 되었던 것이다.

인류는 진화를 거치면서 몸짓, 언어, 문자, 기호 등을 통하여 체내의 정보를 외부로 표출해 무리집단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게 되었다. 따라서 신체에 내재된 정보를 외부로 전달하는 방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지기반(medium)이 바로 미디어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이런 미디어는 테크놀러지의 발달과 함께 동굴의 벽면이나 동물의 뼈에서부터 점토판, 파피루스, 양피지, 종이 등을 거쳐서 지금의 디지털 미디어에 이르고 있다.

서구에서 근대 디자인의 개념이 생겨난 이후, 지금까지 디자이너는 바로 이 미디어에 기생하면서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미디어가 점점 거대화되고 시장 논리가 도입되면서 디자인 행위는 자본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정보의 가치는 대중이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는 정보’에서 ‘소비자에게 구매를 충동하는 정보’로 변질되었다. 그리고 디자인은 정보 그 자체가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지지기반인 미디어를 치장하는 일에 몰두하게 된 것이다.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디자이너에게 더욱 빠른 속도로 아디어나 이미지를 창조하도록 부추겼고, 디지털 미디어의 등장은 정보의 인스턴트화를 가속시켜 불필요한 소모성 정보를 과잉생산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가 권력의 중심으로 이동하여 우리를 지배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런 현실에서 디자이너들은 정보와 미디어에 대한 판단력(literacy)을 가지고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혁명하게 대처해 나갈 능력을 배양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보의 역사와 함께 전개된 디자인 행위를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라는 관점에서 개괄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를 우리말로 옮기면 ‘정보설계’ 또는 ‘정보구축’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라는 개념은 인터넷 사이트 개발에서 사이트 맵 구축 정도의 좁은 의미로 쓰이고 있지만 인류는 언어를 구사하고 문자를 획득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정보를 구축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런 결과가 지도나 다이어그램 등의 디자인 형태로 완성되어 정보를 기록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온 것이다.

건축에서 설계란 구조를 만드는 작업이다. 인체에 비유하면 인테리어가 살과 피부를 만드는 일이라면 살계는 뼈대를 세우는 일에 해당한다. 우리는 지난 50여 년 간 뼈대보다는 살을 찌우고 피부를 매끄럽게 하는 디자인 작업에 치중해 왔다. 그리는 동안 뼈는 약해져 이제는 늘어난 상을 지탱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제는 디자인이라는 단어가 시스템 디자인이나 네트워크 디자인처럼 구조 계획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컨셉트 디자인과 같이 디자인을 영역 획단적인 학문으로 재인식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골다공증에 걸려 쓰러지기 전에 이제는 디자인에 있어서 다시 뼈대를 생각할 때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선조들이 남긴 위대한 지리정보의 문화유산인 고지도를 디자인적 관점에서 분석해고 그 장점을 오늘날의 지도 제작에 유용하게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 고지도에는 그 당시 생활의 터전이었던 공간에 대한 애정이 잘 녹아들어가 있는데 마치 하나의 생명체로서 살아서 꿈틀거리며 그 강렬한 기를 내뿜는 것처럼 느껴진다. 따라서 산맥은 마치 인체의 뼈대처럼 표현하였고 그 사이사이를 흐르는 강을 인체의 핏줄처럼 표현한 것이다. 현대 지도에서는 모든 산이 단지 작은 삼각형 기호로 표현되고 있을 뿐이지만 고지도는 그 산의 특징적 이미지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과장과 위트를 절묘하게 배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동여지도에 표현된 백두산을 보면 우람한 봉우리들이 둘러싼 천지가 마치 손에 닿을 것처럼 생생하게 표현되고 있다.

이런 지도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이론적 배경은 중국에서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천원지방설, 음양오행 등의 사상적 배경 역시 중국의 영향이 그대로 정착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런 중국의 이론적 바탕이나 사상적 배경을 토대로 한국만의 독특한 독지법<sup>讀地法</sup>이 자생하여 정착되었던 것이다.

고지도에서는 한반도 전체를 중국을 향해 서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사람의 머리에 해당되는 백두산을 매우 중요하게 표현하였다. 거기에서 뻗어 내리는 산맥은 인체의 골격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척추로 해석하여 강인하게 표현하였고 이를 백두대간이라고 불렀다. 이런 식으로 모든 지형적 특징을 인체에 대입시켰기 때문에 제주도와 대마도를 양쪽 끝에 해당된다.

우리의 고지도는 다른 나라의 것들과 비교해 볼 때 그 수준이 매우 뛰어나고 예술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는데 서양의 고지도는 대부분 개인적 차원의 관심사에 의해 제작되었지만 우리나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리 정보를 관리하였고, 유교적 전통에 따른 장묘 문화 등에 의해 지형의 풍수적 특징만을 전문적으로 파악하는 상지관(相地官)이나, 지도를 예술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도화서의 화원, 일관된 서체를 유지하기 위해 문서의 필사만을 담당하던 전문 사자관(寫字官)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협업하여 우수한 지도를 제작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국가적 차원에서 지리정보가 관리되었던 것은 지도가 행정과 국방의 기본 자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렇게 뛰어난 지도를 제작할 수 있었다는 것은 조선의 행정과 국방의 수준 역시 그만큼 높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 국가가 관리해 오던 지도가 민간에 보급되면서 민간인 중에서도 우수한 지도 전문가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대표적 인물이 바로 대동여지도를 제작한 고산자 김정호이다. 이는 실학사상의 대두, 상업과 유통의 발달, 그리고 서양 선교사들의 포교 활동에 따라 지도의 수요가 민간에서도 점점 늘어났기 때문이다.<sup>4)</sup>

---

4) 한영우, 안휘준, 배우성(1999). 〈우리 옛지도와 그 아름다움〉. 서울: 효령출판. (2003). 6-7쪽 참조.

■  
제 2부  
디자인 DNA 연구

# 1장 조선시대 이전의 지도 분류 및 특징

## 1절 삼국시대의 지도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지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고구려, 백제, 신라는 모두 지도를 통해 행정구역을 정비하거나 해외에 보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고구려는 628년(영류왕 11) 당태종에게 고구려 강역지도인 봉역도(封域圖)를 보냈다고 한다. 당시 고구려의 일급비밀에 해당하는 이 지도가 당나라에 반출된 것에 연개소문을 비롯한 고구려의 모든 내신들이 분개했다고 한다. 이런 기록으로 미루어보면 고구려는 이미 7세기에 전국 지도를 제작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백제는 도적(圖籍), 즉 지도와 서적이 있었고, 또 지리지(地理志)도 있었다고 한다. 또한 〈일본서기〉에 따르면 백제는 602년 관록이라는 승려가 천문서적, 방술서 등과 함께 지리서를 일본에서 가지고 왔다는 기록이 있다. 여기서 방술서는 풍수지리 서적을 말하므로 백제는 풍수지리와 관련된 지리 지식이 깊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신라도 문무왕이 삼국을 통일한 뒤인 671년(문무왕 11) 행정구역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지도를 이용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19세기 지도학자 김정호는 〈청구도青丘圖〉 부록으로 〈신라구주근현총도〉를 넣었는데 이는 신라시대의 지도를 참고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삼국시대의 지도제작은 중국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인 장형과 배수이다. 장형(張衡)은 2세기에 정량적 지도 제작법을 창시하였는데 그가 처음으로 지도에 방격법(方格法 : 바둑판 눈금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위치나 거리를 이전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계산하거나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 지도에 방격법을 응용한 중국 전통은 그 후 급격하게 발달하였으며, 중세에는 방격과 지명만으로 지도 그 자체를 생략한 도식적인 방격도가 나타났다.<sup>5)</sup>

BC 3세기 중국에서도 수학적 방법에 의해 지도가 제작되었는데 그것은 위나라·서진 지도제작술의 선구자인 배수(裴秀)가 제작한 우공지역도(禹貢地域圖)다. 이 지도 머리말에 지도 제작의 준칙이 되는 제도6체(制圖六體)가 적혀 있다.

- 눈금이 그려진 축척을 이르는 분솔(分率),

5) 한영우, 안휘준, 배우성(1999). 〈우리 옛지도와 그 아름다움〉. 서울: 효령출판. (2003). 15-16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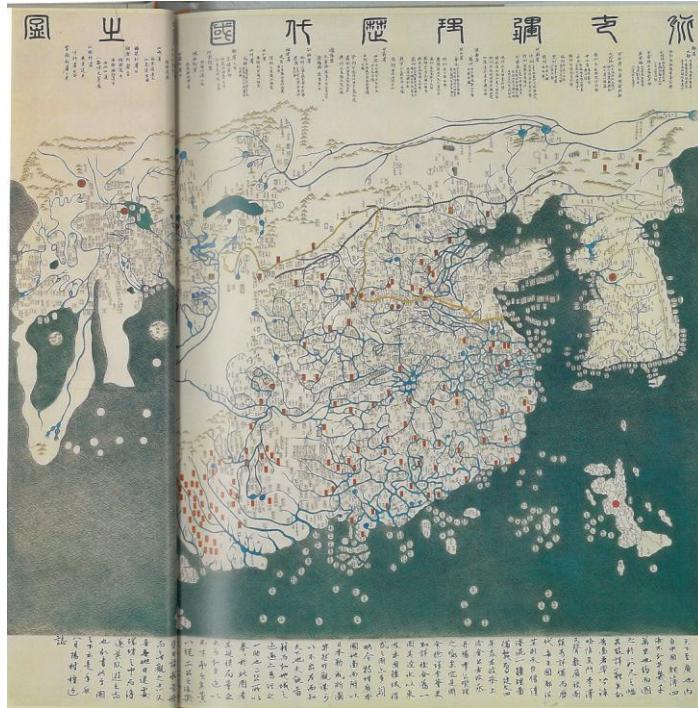
- 가로 · 세로 격자망을 이르는 준망(準望),
- 거리 측정을 이르는 도리(道里),
- 땅의 고저를 측정하는 고하(高下),
- 직각과 예각을 측정하는 방사(方邪),
- 곡선과 직선을 측정하는 우직(迂直)이 그것이다.

이 원리는 유럽의 지도 제작기술이 들어올 때까지 중국과 한국, 일본 지도 제작의 기본 원칙이 되었으며, 고산자 김정호가 청구도와 동여도, 대동여지도를 제작하는데 있어서도 배수의 6체의 원리를 적용하였던 것으로 보아 조선 후기까지도 유효하게 활용되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삼국시대에는 이런 중국의 지도 제작법이 도입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삼국시대에는 발달된 천문학적 지식을 토대로 방위를 결정하거나 척도를 이용하여 땅을 측량하고 지도를 제작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 2절 고려시대의 지도

고려는 1002년 거란에 <고려지리도>를 보냈다는 기록이 있다. 현종 때는 전국을 오도양계로 개편하게 되는데 이를 계기로 <오도양계도>라는 전국지도를 만들게 된다. 19세기 김정호가 편찬한 <청구도>에도 <고려오도양계주현청도>가 들어 있는데, 이것이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고려사>에 의하면 1148년 고려의 두 관료가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고려지도를 송나라에 보내려다 빌각되어 옥사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지도는 고려의 오도양계도의 필사본이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고려후기에는 전국지도만이 아니라 세계지도의 제작도 유행하기 시작했다. 이는 송나라로부터 중국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고, 세계를 정복한 원나라로부터 유럽, 아프리카 아라비아 및 중앙아시아에 관한 많은 지리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2장 조선시대 지도의 시대적 분류와 디자인 유전자적 가치



〈그림 7〉 『혼일강리역대국지도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

### 1절 혼일강리역대국지도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

권근, 김사형, 이무, 이회 등. 채색사본. 158.5×168cm 일본 류코쿠(龍谷)대학.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삼국도〉, 〈조선팔도도〉, 〈혼일강리역대국지도〉 등 국가차원의 지도제작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혼일강리역대국지도〉는 15세기 초의 세계지도로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도 중의 하나로 꼽히는데 당시 최고의 권력 기관이었던 의정부 고관들이 주도하여 만든 정책용 지도라고 볼 수 있다. 의정부의 좌정승 김사형(金士衡)과 우정승 이무(李茂)가 발의하고, 의정부 검상(檢詳) 이회(李會)가 지도 제작의 실무를 담당했으며, 의정부 참찬(參贊) 권근(權近)이 발문을 썼다. 원본은 현재 전하지 않으며 일본 교토의 류코쿠(龍谷)대학에 필사본이 소장되어 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것은 그 복제품이다.

지도의 제목을 보면 ‘혼일강리도’란 하나로 합쳐진 영역, 즉 전 세계를 의미하고, ‘역대국도’는 과거의 도읍지를 뜻한다. 따라서 이 지도는 역대

국가의 수도를 총망라한 세계지도인 것이다. 따라서 당시 세계의 지세를 파악하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조선왕조 개국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건국 초기 흥흉해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당시 동양 문화권을 지배했던 세계관인 천원지방(天圓地方), 즉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난데 그 평평한 땅의 중심에 중국이 있다는 중화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제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중화적 세계관을 따르면서도 한반도를 비교적 당당한 크기로 표현하고 있고, 유럽이나 아프리카 등 미지의 세계까지 폭넓게 수용하고 있어 당시의 개방적인 대외인식을 엿볼 수 있다. 당시 조선에서 이런 수준 높은 세계지도를 제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까지 전해오던 여러 지도의 장점만을 편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권근의 발문에 따르면 이 지도는 중국의 이택민이 만든 <성교광피도>와 천태승 청준이 만든 <흔일강리도>를 더해서 편집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한반도 부분은 이 지도가 만들어지기 직전에 완성되었던 이희의 <조선팔도도>를 참고한 것이다. 또한 1389년 명나라의 <대명흔일도>도 참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명나라 시대의 지명을 반영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지리 정보는 원나라 시대에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

여러 지도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지리 정보가 부족한 곳은 제작자의 상상력이 동원되거나 회화적 표현으로 대처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한반도 북방은 산들과 전나무들을 줄지어 서 있는 모습으로 간략하지만 특성을 살려 표현하고 있다. 특히 회화성을 띠고 있는 것은 바다를 가득 채우고 있는 파도의 표현이다. 세 겹의 수파와 두 겹의 물결이 서로 맞물리듯 짜여 있어서 오늘날의 훌륭한 패턴 디자인을 보는듯한 느낌이 듈다. 물결의 윤곽은 약간 굽은 곡선으로, 그 안에는 가느다란 직선들로 묘사되어 있다.

원나라 때 유입된 이슬람지도학을 바탕으로 유럽, 아프리카 등 조선과 전혀 교류가 없던 지역까지 포괄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의 빅토리아 호와 킬리만자로 산, 사하라 사막, 나일 강 등 주요 지역이 표현된 것으로 보아 당시 조선인들의 세계관이 상당히 광범위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전통적인 직방세계, 즉 중국과 중국에 조공을 받치는 나라들로만 구성된 세계를 뛰어넘어 표현되고 있다. 이 지도보다 1세기 뒤에 등장한 <흔일역대국도강리지도>에는 오히려 아프리카나 유럽 대륙이 사라지고 전통적인 직방세계로 회귀하고 있다. 이는 성리학이 조선에 정착됨에 따라 확장됐던 세계의 이미지가 직방세계로 좁

혀지게 된 것으로 짐작된다.

15세기 초의 세계지도로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도 중의 하나로 꼽힌다. 조선 초기 지도제작의 수준과 더불어 동서 문화의 교류, 그리고 당시 조선의 세계인식의 수준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며 마테오리치의 <곤여만국전도>가 들어오기 전까지 가장 정확한 세계지도였다.<sup>6)</sup>

### 디자인 유전자적 가치

- 크기는 물론이고 그 방대한 영역과 세밀한 정보에 이르기까지 15세기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지도였다.
- 중화적 세계관을 따르면서도 조선을 당당하게 표현함으로써 자존감을 강조하였다.
- 여러 지도의 장점을 편집하여 새롭게 정보를 조직화하고 시각화하는 독창적인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었다.
- 강이나 산맥, 장성, 도읍 등을 컬러로 코드화 하였고 그 표현이 양식화되어 있으면서도 회화적인 맛을 잃지 않고 있다.
- 고급 비단을 사용하고 있고 그 색감이나 서체 등의 조형적인 표현이 매우 미려하다.
- 바다를 표현한 방법이 상당히 독창적 패턴을 이루고 있다.
- 한 장의 지도 위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역사적 맥락을 함축해서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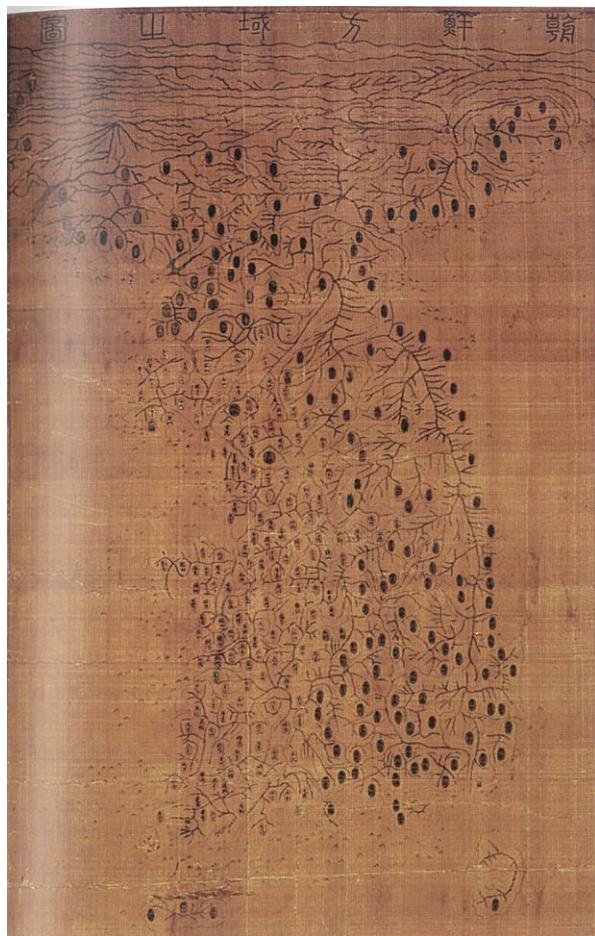
## 2절 조선방역지도 朝鮮方域之圖

1557년. 견본채색. 61×131.8cm. 국보 제248호. 국사편찬위원회.

조선 전기 관에서 편찬한 대표적인 전도로 비단 1필에 아름답게 묘사된 채색 필사본이다. 지도 하단에 기록된 좌목(座目)의 인명과 충주의 지명이 유신현(維新縣)으로 표기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1557년(명종 12) 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도 상단에 제목이 씌어 있고, 중심부에 지도가 그려져 있으며, 지도 하단에는 지도를 만들 때 관여한 사람들의 이름이나 관직, 본관 등을 기록한 좌목이 있는 등 16세기에 유행했던 계회도(契會圖)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좌목의 인적 구성이 이이(李頤) 등 제용감(濟用監)과 관련된 관원이어서

6) 이찬(1991). <한국의 고지도>. 서울: 범우사. 320-321쪽 참조.



〈그림 8〉 『조선방역지도』(朝鮮方域之圖)

전국에서 올라오는 진상품을 관할하기 위해 만들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지도에는 전국의 군현과 수영, 병영, 산맥이 그려져 있는데, 팔도를 색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경기도는 연황색, 충청도와 전라도는 황색, 경상도는 적색, 강원도는 연녹색, 황해도는 백색, 평안도는 녹색, 함경도는 청색으로 군현명의 바탕색을 달리했다.

이 지도에 표현된 조선의 윤곽은 조선 초기의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의 조선 전도에 비해 정확하며, 그중에서도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이 상세하게 표현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북방 영토의 개척으로 인한 관심과 현장 파악 능력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지도는 임진왜란 때 대마도로 유출되었다가 1930년대에 조선사편수회에 인계되면서 우리나라로 되돌아오게 되었다.<sup>7)</sup>

### 디자인 유전자적 가치

7) 신동천(2005). “정보디자인 관점에서 본 〈동여도〉와 〈대동여지도〉에 관한 연구”. 흥익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4-45쪽 참조.

- 진상품을 관할하기 위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리정보를 조직화하고 있다.
  - 〈흔일강리역대국지도〉에 비해 한반도이 윤곽이 명확해졌고 특히 북방지역의 지리정보가 매우 정확해졌다.
  - 각 영역을 컬러로 코드화 하였고 수영, 병영 등의 인문정보를 기호로 구분하고 있다.
  - 고급 비단을 사용하고 있고 그 색감이나 서체 등의 조형적인 표현이 매우 미려하다.

### 3절 동국지도 東國地圖

정상기. 18세기 전반. 채색 필사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그림 9〉 『동국지도 東國地圖』

정상기(鄭尙基 : 1678~1752)가 18세기 전반에 그린 조선의 도별 지도와 전도로 축척이 1/400,000인 도별도(道別圖)와 그것을 합하여 만든 전국도가 있다. 조선 전기와 비교해 볼 때 조선 후기의 지도는 축척이 커지고, 방안좌표(方眼座標)를 도입하여 방위와 거리, 축척 등이 정확해지는 점을 하나의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는데 이 지도는 그 효시가 된다. 도별 동국지도는 각 도를 1장에 그린 8장의 지도로 이들을 합치면 전국지도가 되도록 축척을 일치시켰다. 함경북도 도록에는 여백을 이용하여 지도를 만든 동기와 범례, 축척

을 나타내는 백리척(百里尺)이 실려 있다.

이 지도의 가장 큰 특징은 축척의 개념을 뚜렷이 적용하여 지도를 만들었으며, 지도에 축척을 실제로 표시하여 지도를 통해서 실제 거리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산지나 계곡 등 굴곡이 있는 지형에서는 120리 또는 130리를 평지에서의 100리와 거리로 계산하였다. 함경북도 도면에 그려진 척(梯尺)의 실제 길이는 9.5cm로서 실제거리 100리를 지도상에 9.5cm로 나타내었다. 또 도별로 산·하천·도로 등의 채색을 달리하여 식별하였으며, 지리 현상의 일정한 부분은 기호화했다.

〈동국지도〉는 조선 후기 대축척 지도 발달에 획기적인 역할을 한 당시에 가장 정확한 지도였다. 이 지도를 본 영조는 감탄과 함께 홍문관과 비변사에 비치하도록 했으며, 당시의 여러 실학자들도 칭송을 했다. 정상기의 아들 정항령, 손자 정원립 등 여러 대에 걸쳐 지도를 보완하고 편찬하였기 때문에 유사한 지도가 여러 본이 전하며, 모사본도 다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 디자인 유전자적 가치

- 대축척지도의 효시가 되었던 것으로 정상기가 시작하여 아들 정항령, 손자 정원립의 3대에 이르는 보완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지리정보가 매우 정확하다.
- 오늘날의 지도 기호에 해당하는 범례와 축척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백리척(百里尺)이 표시되고 있어 실측에 의한 정확한 거리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 산지와 평지의 거리를 달리 계산해 실제 이동 시간에 더욱 가깝게 표현하고 있다.

#### 4절 천하도 天下圖

작자미상. 17세기 말. 목판본. 29×33cm. 윤형두 소장.

일반적으로 천하도라고 불리는 이 세계지도는 조선 중기 이후 크게 유행했다. 지도는 독특한 형태와 내용을 지니고 있어 세계의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어왔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유일하게 조선에서만 볼 수 있어 조선인의 독특한 세계관이 반영된 지도로 여겨진다. 지도는 원형으로 그려져 있는데 내대륙–내해–외대륙–외해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내대륙에는



〈그림 10〉 『천하도天下圖』

중국, 조선, 안남(베트남), 인도 등의 실제하는 나라들이 그려져 있다. 내해에는 일본, 류큐(오키나와) 등 실제하는 나라들과 함께 눈이 한 개 뿐인 사람들이 사는 일목국(一目國), 아무도 죽지 않는 불사국(不死國), 귀가 긴 사람들이 사는 섭이국(攝耳國)등 중국의 고전인 〈산해경〉에 나오는 가상의 나라들이 혼재되어 있다. 외대륙에는 대부분 가상의 나라들로 채워져 있다. 이러한 원형의 천하도는 조선 후기에 다양하게 제작되면서 민간에 널리 유포되었다.

당시에는 이미 마테오리치의 곤여만국전도를 시작으로 과학적으로 제작된 서양식 세계지도가 전래되어 이미 지식인들과 실학자들 사이에서 많이 읽혀졌다. 그런 가운데 천하도는 서양사상에 배타적이면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지키려는 학자들이 서양의 과학적 지도에 대응하여 만든 한국적인 원형 세계 지도를 만들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지도의 형태는 서양의 것을 따르고 있지만 지도의 내용은 동양의 고전과 조선의 사상에 기반 했던 것이다.

원형 천하도를 보면 내대륙이 중앙에 위치해 있고,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자리잡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거주하는 곳을 세계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크게 강조하여 그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원형 천하도가 조선에서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중국만큼 부각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원형 천하도의 목판본을 검토해 보면 중국은 원으로 크게 강조하여 표현하였고 조선은 아무런 표시없이 글자로만 표기하였으며 나머지 주변에 배치된 나라들은 직사각형 안에 표기한 것을 볼 수 있다.

천하도의 지명들은 산해경이라는 고대 중국의 지리서에서 취한 것이 상당

히 많다. 작자 미상의 산해경은 산경(山徑)과 해경(海徑)이 합쳐진 것으로 산경은 중국의 주변지역에 있는 산을 다섯 방위로 나누어 산의 형세와 광물, 동물, 식물, 특이한 괴물 등을 기술하고 있으며 해경은 중국 주변의 바다와 먼 지역을 네 방위로 나누어 각 지역의 풍속과 사물, 괴물 등을 기술하였다. 8)

### 디자인 유전자적 가치

- 실용적인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 밀려들어 오는 서양 사상에 대해 한국의 전통문화를 지키려는 당시 지식인들의 상상력과 해학이 담겨져 있다.
- 이런 형식의 세계지도는 당시 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조선에서만 볼 수 있어 조선인의 독특한 세계관을 살펴볼 수 있다.
- 이런 독특한 상상력과 스토리텔링은 게임을 비롯한 엔터테이먼트 디자인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다.
- 바다를 표현하는 수파묘(水波描)가 조형적으로 매우 아름답다.

### 5절 천상열차분야지도 天象列次分野之圖

작자미상. 1687년. 보물 네 837호. 207×121cm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그림 11〉 『천상열차분야지도  
天象列次分野之圖』

1395년(태조 4) 처음 새긴 석각 천문도가 닳아서 잘 보이지 않게 되자 1687년(숙종 13)에 다시 새겨 제작한 것이다. 별자리 그림에는 중심에 북극을 두고 태양이 지나는 길인 황도와 남북극 가운데 적도를 그렸다. 또한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별들이 총망라되어 황도 부근의 하늘을 원으로 표현하고 12등분 한 다음 1,464개의 별들을 점으로 표시하였다. 아래에는 천문도를 만들게 된 경위와 참여자 명단이 적혀 있다. 구도상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태조 때 처음 만든 것과 거의 일치한다.

예로부터 천문은 제왕의 학문으로 중시되었다. 주역에서도 ‘우리러 천문을 보고 아래로 지리를 살핀다’는 구절이 있는 것처럼 천문은 지리와 더불어 국가 경영

8) 이찬(1991). 〈한국의 고지도〉. 서울: 범우사. 345쪽 참조.

의 주요한 학문이었다. 지리가 국토의 지형지세, 토지, 인구 및 물산을 파악하여 국정의 기초자료 확보와 관련되어 있다면 천문은 천체의 운행을 관찰하고 예측하여 정확한 달력(曆)을 제작하는 것과 관련된다.

특히 하늘을 정치의 근본이념으로 생각했던 전통시대에서 천체현상은 하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주재자로서 하늘의 의사는 천체운행을 통해 구체화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으므로 하늘을 관측의 대상으로 삼아 해마다 관측의 결과를 기록하고 아울러 하늘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하늘의 모습을 그린 천문도는 오래전에 제작되었는데 고구려의 고분벽화에서 그 구체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신라 경주의 첨성대, 개성 만월대의 첨성대 등의 천문관측 시설이 설치되어 천체운행의 관찰에 노력하였는데 이러한 성과들이 천문도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존하는 것은 없다.

현존하는 최고의 석각천문도는 조선 건국 초기에 제작된 〈천상열차문야지도〉를 들 수 있다. 이 천문도는 고구려 천문도의 전통을 이어 제작된 것으로 당시 천문학적 지식이 총망라된 것이다. 이러한 조선의 천문도 제작은 조선왕조의 건국이 하늘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상징성을 지니는 것이기도 하다. 이후에 제작되는 천문도는 실생활에 이용되는 실용적인 측면보다는 이러한 이념적인 성격이 강하여 18세기 이후에도 여전히 태조 때의 천문도가 유행하기도 했다. 9)

### 디자인 유전자적 가치

- 조선 초기의 높은 천문학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 실용적인 측면이 아니라 조선 건국이 하늘의 뜻이라는 이념적인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그 위상을 당당하게 표현하기 위해 커다란 돌에 새겨 제작하였다.
- 고구려 고분벽화에 그려진 천문도의 맥락을 이어받고 있는데 이는 중화적 세계관에서 탈피하여 조선의 자존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 조형적인 안정감이 뛰어나고 전반적인 표현의 퀄리티가 매우 높다.

## 6절 도성도 都城圖

18세기 후기. 채색사본. 67.5×92cm. 서울대 규장각 소장

9) 오상학(2005). 〈옛 삶터의 모습 고지도〉.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88-89쪽 참조.



〈그림 12〉 『도성도都城圖』

조선의 수도였던 한성부(漢城府)의 도성을 중심으로 그린 지도로서 현존하는 수십 종의 서울 관련 지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지도이다. 광화문이 구 광화문이라고 표기된 것, 1787년부터 1802년까지만 있었던 장용영(壯勇營)이 표기된 것으로 보아 경복궁이 재건되기 이전인 18세기 말에 제작된 것으로 짐작되는 이 지도는 한양의 행정, 경제만이 아니라 지형과 풍수도 빼어난 곳이었음을 진경산수화(眞景山水畫)풍으로 묘사하고 있어 그 그림만으로도 높은 가치를 지닌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sup>10)</sup>

면밀한 도면, 전문 사자관에 의한 표기는 물론이고 도화서의 화원이 성심을 다해 그렸을 것으로 짐작되는 뛰어난 산수화 솜씨 그리고 남북을 뒤바꾸어 표현한 것으로 보아 이 지도는 어람용으로 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쪽 삼각산(북한산)의 백운봉, 인수봉, 보현봉을 시작으로 위쪽의 목멱산(남산), 좌우로 낙산과 인왕산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 서울을 둘러싼 이 모든 산들이 마치 한 송이 꽃이 활짝 피어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전형적인 개화식(외반식) 구도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 지도의 산수화풍은 겸재 정선(1676–1759)의 진경산수화풍의 맥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선 이후 진경산수화가 지도제작에 정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지도는 주변의 산세나 궁궐은 회화적으로 표현한 반면, 도성의 인문현상을 대부분 기호화하여 명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주변 산세의 표현과 대비되면서 실용성까지도 고루 갖추고 있다. 지도 여백에는 영조 이후에 확립된 한성부의 5부와 43방 체계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으며, 돈화문, 숭례문, 돈의문, 흥인지문 등에서 주요지점까지의 거리가 보(步)수로 나타나 있다. 가옥이나

10) 한영우, 안휘준, 배우성(1999). 〈우리 옛지도와 그 아름다움〉. 서울: 효형출판. (2003). 108-109쪽 참조.

건물 그림 대신에 지명, 주요관청, 다리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또한 도성의 한 가운데를 흐르는 청계천과 그 지류는 청색으로, 그 사이에 혈맥처럼 펼쳐진 도로망은 적색으로 대비시켰으며 각 도로는 지선과 간선에 따라 그 선의 굵기를 다르게 표현하여 200년 전 계획도시 서울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도성 외곽으로 연결되는 도로망이나 취락 구조를 통해 당시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따라 도성 밖의 인구와 취락이 증가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디자인 유전자적 가치

- 도면식 지도와 회화식 지도의 이질적 요소의 장점을 잘 결합하여 18세기 조선의 수도인 한양 도성의 인문현상과 자연경관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다.
- 모든 산들이 마치 한 송이 꽃이 활짝 피어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전형적인 개화식(외반식) 구도로 서울의 공간적 특징과 풍수지리와 음양오행사상이 잘 표현되고 있다.
- 겸재 정선(1676-1759)의 진경산수화풍의 맥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선 이후 진경산수화가 지도체작에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주요지점까지의 거리가 보(步)수로 나타나 있고 가옥이나 건물 그림 대신에 지명, 주요관청, 다리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 정보 전달 및 실용성까지도 고루 갖추고 있다.
- 인문현상은 대부분 기호로 표현하고 있는데 청계천과 그 지류는 청색으로, 그 사이에 혈맥처럼 펼쳐진 도로망은 적색으로 대비시켰으며, 각 도로는 지선과 간선에 따라 그 선의 굵기를 다르게 표현하여 도시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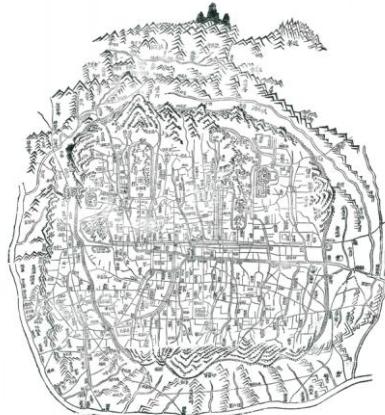
### 7절 수선전도 首善全圖

김정호(추정). 1830년대. 목판본. 101×74cm 보물 853호. 고려대박물관 소장.<sup>11)</sup>

상 · 중 · 하 세장으로 이루어진 판목(版木)은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이 판목으로 찍은 목판본 지도는 국립중앙도서관 등 여러 곳에 소장되어 있다. 수선이란 한서(漢書) 유림전(儒林傳)에 ‘으뜸가는 선을 세움은 서울에서 비롯한다’는 것을 빌려와 서울의 별칭으로 사용하였다. 1824년에 건

11) 오상학(2005). 〈옛 삶터의 모습 고지도〉.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64쪽 참조.

## 首善全圖



〈그림 13-1〉『수선전도首善全圖』



〈그림7-2〉『수선전도首善全圖』

립된 경우궁(景祐宮)이 그려져 있고, 창의문(彰義門) 밖 총융청이 총신영(總新營)으로 표기되어 있어 1830년대에 만든 지도로 추정되고 있다.

지도는 남쪽으로 한강을 경계로 하여 북쪽으로 도봉산, 서쪽으로 마포와 성산, 동쪽으로는 안암동과 담십리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삼각산(북한산)의 세 봉우리가 부각되어 있고 여기에서 뻗어 내려 서울을 감싸고 있는 산세가 잘 표현되어 있다. 이런 산줄기 사이에서 흘러내려 서울 중심을 흐르는 청계천의 모습도 정교하게 표현하고 있다. 또한 도성 내부에는 궁궐, 관청, 행정구역이 표시되어 있고, 도로망도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다. 하천과 도로의 혼돈을 피하기 위해 하천은 쌍선으로, 도로는 단선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목판본에서도 과거 〈도성도〉에서 진경산수화풍의 회화적 표현과 인문현상의 기호적 표현이 모두 가능하다는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것처럼 느껴진다. 산맥과 하천, 도로를 마치 인체의 골격과 혈맥처럼 표현하고 있어 생동감이 넘쳐난다. 또한 도성도와는 달리 남북을 똑바로 표현하여 임금의 시각을 탈피하고 있고 채색화가 아니라 목판본에 의한 대량생산을 전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계층의 폐쇄적 정보를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보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실제 보급할 때에는 목판본 위에 부분 채색을 하였을 것으로 짐작한다.

지도에 수록된 정보와 축척 등은 김정호가 비슷한 시기에 제작한 〈청구도〉에서 보여주고 있는 실질적인 측량을 따르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실용성을 전제로 제작한 것이 아니라 음양오행에 입각한 서울의 상징적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 구체적인 예로 한강이 실제와는 다르게 북

쪽을 향해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도성 공간을 하나의 소우주로 표현하기 위한 제작자의 의도가 잘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 디자인 유전자적 가치

- 목판본에서도 도면식 지도와 진경산수의 맥을 따르는 회화식 지도의 장점을 모두 잘 표현할 수 있다는 당당한 자심감이 엿보인다.
- 삼각산(북한산)에서 뻗어내려 서울을 감싸고 있는 모든 산들이 마치 한 송이 꽂이 활짝 피어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전형적인 개화식(외반식) 구도로 서울의 공간적 특징과 풍수지리와 음양오행 사상이 잘 표현되고 있다.
- 산맥과 하천, 도로를 마치 인체의 골격과 혈맥처럼 표현하고 있어 생동감이 넘쳐난다.
- 한강을 실제와는 다르게 북쪽을 향해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서울을 하나의 소우주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제작자의 의도가 잘 드러난다.
- 목판본에 의한 대량생산을 전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계층의 폐쇄적 정보를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보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목판본임을 감안하여 하천과 도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하천은 쌍선으로 도로는 단선으로 표현하여 정보에 혼돈을 최소화하였다.
- 도성도가 어립용이라면 이 수선전도는 일반 대중들에게 보급하기 위해 복판본을 바탕으로 대량 생산을 전재로 제작되었다.

### 8절 청구도 靑邱圖

김정호. 1834년. 보물 제1594호 채색필사본. 국립중앙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



〈그림 14〉『청구도 靑邱圖』

〈청구도〉는 〈동여도지〉를 통해 구축된 지리정보를 바탕으로 김정호가 처음으로 제작한 전국지도로 1834년(순조 34)에 완성되었다. 이 지도는 절첩식으로 만들었으며, 지도첩 한 권의 크기는 170×230mm, 전부 펼치면 가로 462cm 세로 870cm로 현존하는 고지도 중에서 가장 크다. 〈청구도〉는 전국을 가로 22판, 세로 29층으로 나누었고, ‘건곤(乾坤)’ 두 책으로 나누어 1~29층 중 흘수 층은 ‘진’ 책에, 짹수 층은 ‘곤’ 책에 정보를 담아 서로 위아래로 잇대어 볼 수 있게 했다. 이러한 형식과 구성은 이후에 제작된 〈동여도〉와 〈대동여지도〉 제작에도 활용되었다.

〈청구도〉는 채색필사본으로 범례(凡例), 지도식(地圖式), 본조팔도주현도총목(本朝八道州縣圖總目), 도성전도(都城全圖), 팔도주현도(八道州縣圖), 그리고 부록으로는 신라구주군현총도(新羅九州郡縣總圖), 고려양계지도(高麗兩界地圖), 본조팔도성경합도(本朝八道盛京合圖)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구도〉는 전국을 실측한 결과에서 얻은 수치로 동서 1,500리, 남북 3,000리를 기준으로 계산해서 도면 외곽에 가로 7개, 세로 10개의 눈금을 그어 한 개의 도면을 70개의 가상면으로 나누었는데, 이것은 현재의 위도나 경도와 같은 것으로 지형과 고을의 위치를 정확히 표현하려 했던 김정호의 노력이 숨어있다. 또한 김정호는 지도를 제작할 때 당시의 지도 제작의 필수 요소인, 배수(裴秀) 188의 지도 제작 6원칙을 이용했다.

〈청구도〉는 일반적인 방쾌표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방쾌의 장점을 살려 극고표와 방위표의 도입으로 읍치의 위치와 비교적 정확한 우리나라의 지리정보를 얻었다. 방위표는 당시 동서남북 4방위를 쓴 반면, 김정호는 12간지를 적용해 12방위법을 썼다. 〈청구도〉는 기준이 되는 도시를 정해 그 도시를 중심으로 10리마다 원을 그려 방위와 거리를 측정해 지도에 옮겼다. 이를 흔히 평환법(平環法)이라고 한다. 이러한 제작 방법은 〈동국여지승람〉과 같은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지리서의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었다.<sup>12)</sup>

### 디자인 유전자적 가치

- 책머리에 본조팔도주현도총목이라는 인덱스 기능을 두어 사용자가 필요한 부분을 빨리 찾아 볼 수 있도록 기능적이고 효율적으로 지리정보를 편집했다.
  - 군현의 경계 표시를 점선으로 나타냈으며, 각 도(道)를 색으로도 구분해 시각적으로 명확히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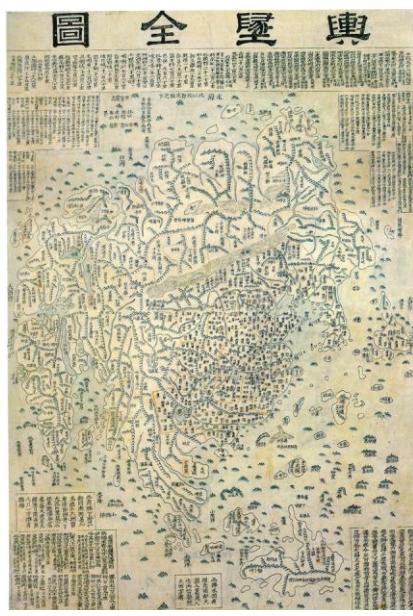
12) 신동천(2005). “정보디자인 관점에서 본 〈동여도〉와 〈대동여지도〉에 관한 연구”. 흥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9-90쪽 참조.

- 동서남북 4방위가 아니라 12간지를 토대로 한 12방위 법을 도입하여 위치를 더욱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 기준이 되는 도시를 정해 그 도시를 중심으로 10리마다 원을 그려 방위와 거리를 측정해 지도에 옮기는 평환법(平環法)을 도입하여 〈동국여지승람〉 등의 오류를 바로잡았다.

### 9절 여지전도 輿酒全圖

18세기 말. 목판본 85.5×59cm

〈여지전도〉는 제작자나 제작 시기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아 김정호의 작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그의 전후 작품을 비교하거나 내용으로 김정호의 작품임을 유추할 수 있다. 〈여지전도〉는 서구식 세계지도를 바탕으로 조선에서 새롭게 편집하여 제작된 당시 지리사상을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서양의 지리지식이 조선사회에 유입되면서 지리적 세계에 대한 사고가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기 때문이다.<sup>13)</sup>



〈그림 15〉 『여지전도 輿酒全圖』

〈여지전도〉는 지구구체설에 기초한 서양의 양반구도를 기본 자료로 삼았지만 동양의 전통적인 지도제작 방식을 따라 방형으로 세계를 그렸다. 역사상 동양과 전혀 관계가 없던 신대륙을 지도에서 제외시켰고 과거의 중화적 세계관에 따라 중국을 중심에 두고 주변에 유럽, 아프리카 등을 축소시켜 배치하였다. 최한기의 〈지구전후도〉에서 보이는 위도와 경도가 없어서 흡사 천원지방의 전통적 세계관에 입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구의 북극과 남극에 대한 인식, 공전과 자전에 의한 계절적, 시간적 변화 등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구구체설을 일부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지도의 내용은 최한기의 〈지구전후도〉에 실린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을 나타낸 면과 흡사하다. 그리고 지도에 실린 지명도 몇 개 지역을 제외하곤 똑같다. 이 지도의 제작 목적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

13) 신동천(2005). “정보디자인 관점에서 본 〈동여도〉와 〈대동여지도〉에 관한 연구”. 흥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0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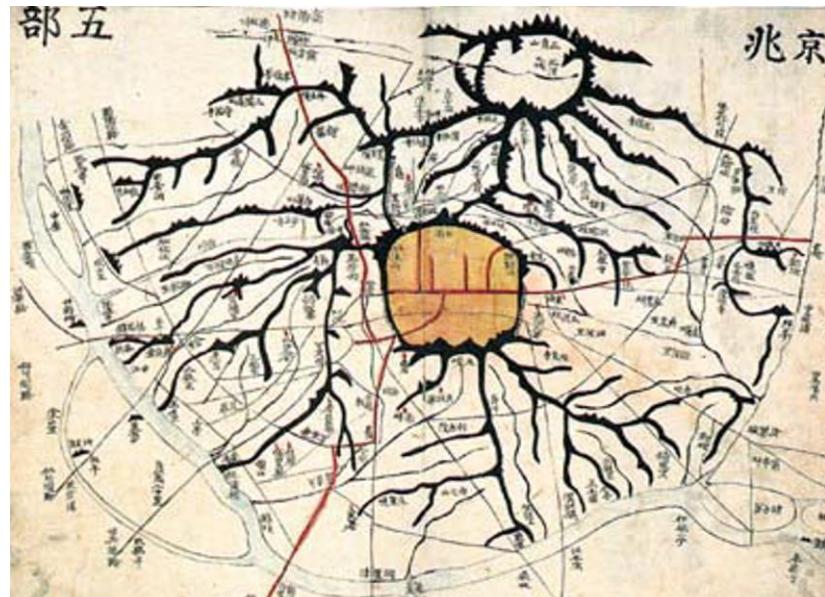
하지 않았는데, 관련 학계에서는 아편전쟁을 겪은 중국의 상황을 감안해 일부 지식인들이 이를 대비하기 위해 제작한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 디자인 유전자적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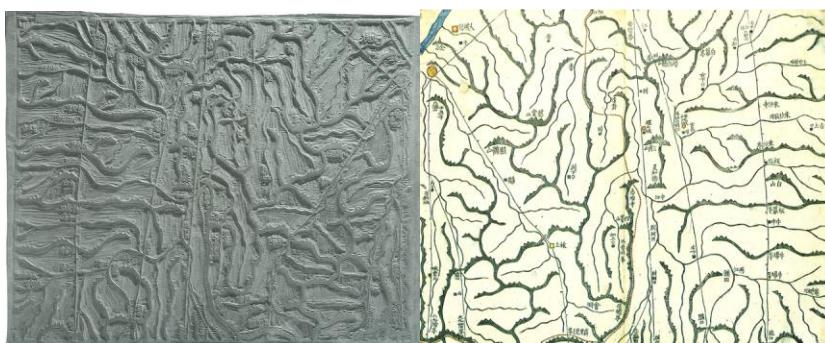
- 지도와 지지의 장점을 복합적으로 융합한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 설명문을 넣기 위해 비교적 정보가 적은 남극 대륙을 삭제했다.
- 천문학적인 지리정보를 배제하면서 독특한 시점에서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 10절 대동여지도 大東輿地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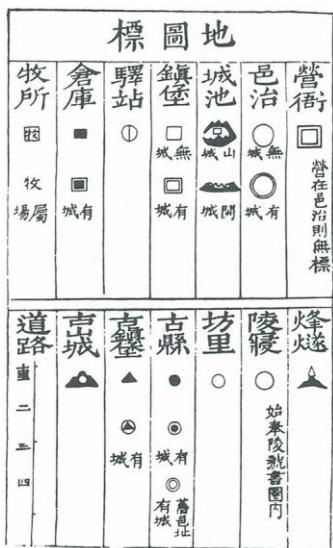
1861년. 목판본. 30.5x20cm.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그림 16-1〉 『대동여지도 大東輿地圖』



〈그림 10-2〉 〈그림 10-3〉 『대동여지도 大東輿地圖』



〈그림 10-4〉 『대동여지도』 大東輿地圖

는 책에 소개돼 있으며, 동양의 전통 지도들 중에서 지도학적으로 가장 우수한 지도일 뿐만 아니라 목판본 지도들 중에서도 가장 정교하면서도 품격을 갖춘 지도라고 극찬하고 있다.

〈대동여지도〉의 제1층에는 지도의 제목과 밭간 연도 및 밭간자를 명시하고, 본도와는 별도로 상세한 서울의 도성도(都城圖)와 경조오부도(京兆五部圖)를 싣고 있다. 도성도는 〈청구도〉의 도성전도를 바탕으로 한 것이고, 경조오부는 김정호의 1840년대 제작으로 추정되는 목판 〈수선전도(首善全圖)〉와 같은 맥락의 지도이다.

또한 지도 외에 〈대동여지도〉의 서문에 해당하는 지도유설(地圖類說)이 4면에 걸쳐 실려 있다. 지도유설에는 지도의 기원과 그 중요성을 말하고 중국 진(晋)나라 지도학자인 배수(裴秀)가 말한 지도제작의 6원칙을 소개했다. 지도 유설의 끝부분에는 문현비고를 인용해서 우리나라의 해안에 연해 있는 읍의 거리를 근거로 한 해안선의 거리와 압록강과 두만강의 길이 등을 이수(里數)로 표시하고 있다. 〈대동여지도〉에는 제1층 첫머리에 그려져 있는 지도 방안(方眼)에 매방십리(每方十里)라고 되어 있어서 간접적으로 축척이 표시되어 있다. 지도의 좌표에 해당하는 이 방안은 지도를 동서로 접은 1면을 남북 12방안, 동서 8방안으로 구분하고 있고, 남북이 120리, 동서는 80리로 되어 있다.

〈대동여지도〉에서는 개개의 산보다 산계 즉 산줄기를 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산지와 산지가 떨어져 있더라도 그 중간을 연결하

〈대동여지도〉는 〈청구도〉와 〈동여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된 목판본 대축척 지도로 분첩절첩식(分帖折疊式) 지도첩이다. 이러한 지도첩의 형식은 넓은 지역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장점을 지니는 동시에 22층을 펼쳐서 전부 이어 붙이면 우리나라 전도를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동여도〉와 같은 구성과 편집을 갖추고 있지만, 목판본이라는 특성상 일부 지명이 삭제되었다. 지도의 크기는 200×300mm로 〈동여도〉와 비슷하고, 제작 연대는 1861년과 1864년 각각 제작되었다. 〈대동여지도〉는 외국의 〈세계지도학사(The History of Cartography)〉라

는 분수계(分水界)가 있으면 이 두 산지는 연속되는 산줄기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산줄기 사이에 자연스럽게 발달하는 수계를 자세하게 나타내고 있다. 산지를 개별적인 독립된 산으로 보지 않고 어떤 체계를 가진 산줄기로 보려는 시도는 묘도(墓圖)에서 널리 쓰여온 전통이다. 묘도의 대부분은 풍수(風水)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어서 산줄기와 물줄기의 도식적 표현은 묘도의 필수적인 것이었다. 〈대동여지도〉에서 산계와 수계의 중시, 특히 분수계를 연속되는 산줄기로 표현한 점은 묘도와 일맥 상통하는 점이다. 그러나 묘도에서는 국지적인 좁은 지역에 한정되어 있으나 〈대동여지도〉는 전국적인 규모라는 데 큰 차이가 있다. 〈대동여지도〉에서는 산계를 단순한 선으로만 표시한 것이 아니고 선의 넓고 좁음의 형태를 통하여 산맥과 산의 모양·크기 및 분수령과 하천유역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도록 표현한 일종의 '산악투영도법(山岳投影圖法)'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도에서 개개의 산지가 아니고 산맥을 표시하는 전통은 조선 초기에 만들어진 이회(李徽)의 〈팔도지도〉, 정척(鄭陟)과 양성지(梁誠之)의 〈동국지도〉(1463), 그리고 18세기 중엽 정상기의 〈동국지도〉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지도들은 모두 필사본이고, 또 〈대동여지도〉에 비교하면 소축적지도이다. 김정호는 이러한 전통을 바탕으로 목판 인쇄를 통해서 새로운 산계의 표시를 시도한 것이다.<sup>14)</sup>

〈청구도〉에서는 지도 안에 호구, 전결, 군정과 같은 지지적(地誌的)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대동여지도는 지지적인 내용은 따로 제작한 〈대동지지 大東地志〉에 미루고 순수한 지도로 남게 했다. 따라서 기술적인 내용은 가능한 한 부호로 처리했다. 이 부호를 설명한 범례(凡例)를 〈대동여지도〉에서는 지도표(地圖標)라고 부르고 있다. 지도표는 14개 항목으로 나누고 그것을 다시 22개로 세분하였다. 〈청구도〉에서도 지도식(地圖式)이라고 하여 지도의 범례가 있기는 했으나 간략한 것이었고, 〈대동여지도〉에서 본격적인 지도의 범례가 채택되었다.

지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축적 지도에 걸맞게 지도의 내용이 매우 자세해졌다. 즉 각도의 관찰사영을 표기하는 영아(營衙), 부군현(付郡隸縣)의 읍치(邑治), 성지·역참·창고·목소·봉수·능침·방리·고현·고진보·고산성·도로 등이 기호로 표시되어 있다. 특히 성지·진보·역참·목소·봉수 등 군사적인 주요시설을 상세히 표시하고 있는 점은 김정호가 서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도의 군사적인 중요성을 잘 나타낸 부분이다.

〈청구도〉에서는 주로 남북방향의 간선도로의 표시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14) 신동천(2005). “정보디자인 관점에서 본 〈동여도〉와 〈대동여지도〉에 관한 연구”. 흥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7-108쪽 참조.

〈대동여지도〉에서는 그외에 동서방향을 비롯한 지역 간의 내부 연결도로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표시하고 있으며, 거리도 이수(里數)로 표시하고 있다.

### 디자인 유전자적 가치

- 효율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기호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반복되는 정보를 최소화하고 있다.
- 지형지물의 위치를 기호로써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 지도 사용자에게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 지리정보를 기록하기 위해 지도표를 이용해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있다.
- 성격이 비슷한 지리 정보의 디테일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같은 형태에 기호의 크기 차이를 주어 사용자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 한 지도안에 대, 중, 소축척 지도를 모두 담고 있어 현대 지도와 같은 정보 전달의 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었다.
- 명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지도 제작의 특성에 맞는 서체를 사용했다.
- 서체에 장식을 배제하고, 가로와 세로획을 엄격하게 정리했으며, 글자와 가로 비율을 줄여 한정된 공간에 많은 정보를 담아야 하는 지도의 단점을 보완하였다.
- 산줄기 굵기에 차이를 주어 지도 사용자에게 우리나라 지형에 관한 정보를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일부 산의 형태를 사실적으로 표현해 사용자가 직접 그곳을 가보지 않아도 풍광을 어림잡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 11절 지구전후도

최한기. 김석호. 1834년 목판본. 42×88cm.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장정부의 〈지구도〉를 김정호가 목판지도로 제작한 것이다. 최한기의 작품으로 전해지지만 그는 제작을 의뢰하고 김정호가 판각한 것이다. 서구식 지도의 영향을 받아 앞뒷면의 지리정보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지구전후도〉의 가장 큰 특징은 경위도선과 적도, 황도를 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완전히 탈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황도에 24절기를 표시한 것은 당시 서양의 천문학이 전래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지도는 서양의 천문학과 동양의 24절기를 접목시켜 계절의 변화와 태양의 출몰시간, 역법 등 태양과 지구의 관계에 대한 입체적인 정보를 평면



〈그림 17-1〉『지구전후도』

〈그림 11-2〉『지구천후도』

에 옮겨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sup>15)</sup>

#### 디자인 유전자적 가치

- 천문학 정보를 강조하기 위해 세계지도의 디테일을 과감하게 축소해서 표현하고 있다.
- 중국을 통해 들어온 세계지도는 비교적 크게 제작된 반면 이 지도는 휴대할 수 있을 정도로 작게 제작되어 기능성을 강조하였다.
- 〈곤여만국전도〉와 같은 지도에서의 불필요한 상세 정보를 과감하게 축소하여 천문학적 절기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명료하게 전달하고 있다.
- 〈곤여만국전도〉에는 누락되었던 호주 대륙을 포함하고 있어 더욱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 12절 정읍현 군현지도

1872년. 영인본 〈조선후기 지방지도〉에서

조선 후기 군현지도의 특징은 국가적인 필요성에 따라 지도에 사창(社倉), 장시(場市), 도로(道路) 등 사회경제적 지리정보가 잘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다. 정읍현 지도는 전체적인 형식에서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의 개념을 도입하여 행정구역을 오방색(五方色)을 기본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지도는 남북이 뒤집혀 표현되고 있는데 좌청룡, 우백호, 북현무, 남주작을 상징하는 산과 그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색이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산맥 표현은 정상기의 〈동국지도〉와 유사한 방법으로 먹선을 단선 혹은 이중이나 삼중으로 중복시키면서 연결하고 그 위에 연녹색 채색을 더하는 방식으로 그려졌다.<sup>16)</sup>

15) 신동천(2005). “정보디자인 관점에서 본 〈동여도〉와 〈대동여지도〉에 관한 연구” . 흥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9쪽 참조.

16) 오상학(2005). 〈옛 삶터의 모습 고지도〉.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66-67쪽 참조.



〈그림 18〉 「정읍현 군현지도』

또한 도로와 하천의 흐름을 사람의 혈관과 같이 표현하였으며 연결된 산들을 사람의 골격처럼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도는 산천을 사람의 몸과 같이 하나의 유기적 생명체로 인식하여 산들은 마치 서로 어깨를 걸고 꿈틀꿈틀 거리는 것 같은 표현은 인간과 땅을 동일시한 선조들의 풍수사상을 살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방향은 북쪽이 아래를 향하고 있지만 길을 따라 이동하는 사람의 시점을 배려하여 다양한 시점이 한 장의 지도위에 표현되고 있다 는 것이다.

### 디자인 유전자적 가치

- 한 장의 지도 위에 다양향 시점이 적용되고 있어 오늘날 내비게이터에서의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인다.
- 길을 따라 이동하는 사용자 측면의 유저밸리티를 충분히 고려한 다중 시점의 적용으로 종이지도이지만 가상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처럼 상호작용성이 강조되고 있다.
- 풍수지리와 음양오행을 기반으로 컬러를 코드화 하였고 통치 의지를 잘 드러내는 인문지리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시각화되어 있다.
- 산맥과 하천, 도로를 마치 인체의 골격과 혈맥처럼 표현하고 있어 생동감이 넘쳐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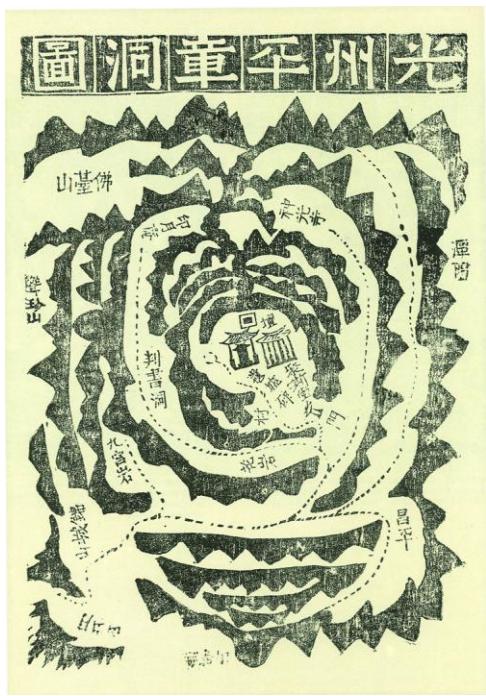
### 13절 광주평장동도

19세기 후기. 목판본. 24×17cm 이찬 소장

현재 전라남도 담양군의 광산김씨 시조의 제단 지도. 풍수사상에 따라 묘지나 택지의 위치를 선정하게 되는데 목판에 나타난 것으로는 묘지인지 택지 인지를 확실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북서쪽에 있는 불대산이 조산으로 삼고 있고 남쪽 멀리 떨어진 곳에 무등산이 보인다.<sup>17)</sup>

17) 이찬(1991). 〈한국의 고지도〉. 서울: 범우사. 407쪽 참조.

이것은 원래 족보에 삽입되었던 지도로 짐작되는데 이 지도의 지형 표시 방법은 묘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산의 능선을 선으로 표시하고 그 능선의 표현에서 단순히 선만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떨어진 산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능선과 사면 산악평면도법의 개념은 이렇게 오랜 전통을 이어온 명당도에서 채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9〉 『광주평장동도』

풍수지리는 한국, 중국 등 동북아시아 여러 민족의 지형과 기후, 풍토 등 넓은 의미에서의 지리관, 토지관이자 자연에 대한 해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음양론과 오행설을 기반으로 주역의 체계를 주요한 논리구조로 삼은 전통적인 지리과학으로, 복을 추구하고 불행을 피한다는 추길피흉(追吉避凶)을 목적으로 삼는 상지기술학(相地技術學)이다. 이것이 후에 효의 관념이나 샤머니즘과 결합되어 이기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일종의 토지관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초기 한양의 정도와 같이 도읍을 결정하거나 고을의 읍치건설에 풍수지리가 위정자등에 의해 이용되었다. 또한 민간에 널리 퍼지면서 주택의 입지나 방향의 결정, 죽은 자를 위한 산소의 자리 잡기에 풍수가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난해한 풍수지리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지도가 제작되었는데 이를 명당도 또는 산도라고 불렀다.

이러한 풍수지도는 일반 지도와 달리 풍수적 개념에 입각해 제작되었다. 풍수지리에서는 산을 용으로 인식하는데 풍수도에서도 이러한 인식이 반영되어 산이 단독으로 그려지는 경우는 드물고 용이 흘러가는 것처럼 산줄기의 형태로 그려진다. 또한 명당을 이루는 주요 요소인 조종산, 주산, 좌청룡, 우백호, 안산, 조산, 명당수 등이 독특하게 형상화된다.

현존하는 명당도들은 거주지, 촌락 등의 양택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산소와 같은 음택을 대상으로 그린 것들이 많다. 특히 산도는 가문의 족보에 수록되는 경우가 흔한데 왕릉의 경우는 따로 정교하게 그리기도 했다. 산도에서는 일종의 방위에 해당하는 좌향(坐向)의 표시도 종종 보이는데, 이러한 전통적인 방위를 측정하는 데 다양한 패철(나침반)을 사용하기도 했다.

### 디자인 유전자적 가치

– 풍수사상에 따른 명당을 설명하기 위해 주변의 따로 떨어진 산들을 맥락적으로 서로 연결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하 마리의 용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은 맥락적 관계를 시각화 시키는 매우 독특한 방법이다.

### 14절 울릉도 외도

이규원. 1882년 경. 채색사본. 서울대 규장각 소장.



〈그림 20〉『울릉도 외도』

울릉도를 둘러싼 해안 바위를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 울릉도 둘레의 포구와 바위이름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24방위를 표시하고 있다. 모든 바위와 산들이 중심을 향해 표현되고 있어 도성도나 수선전도와는 반대로 마치 꽃봉오리가 꽃잎을 안으로 오므리고 있는 것 같은 폐화식(내경식) 구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 가운데 비어 있는 공간은 나리분지로 실제 가보

지 않더라도 울릉도의 전체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섬의 특징을 잘 포착하고 있다. 이것은 사용자가 도성도나 수선전도처럼 도성 안에서 외부의 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섬 주변을 돌면서 섬의 지형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폐화식 표현 방법은 그 크기가 작고 지형이 험준한 지역을 표현하는데 주로 사용되었다.<sup>18)</sup>

### 디자인 유전자적 가치

- 24방향의 다중 시점을 통하여 바다에서 섬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 오늘날 내비게이터에서의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인다.
- 배를 타고 이동하는 사용자 측면의 유저빌리티를 충분히 고려한 다중 시점의 적용으로 종이지도이지만 가상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처럼 상호작용성이 강조되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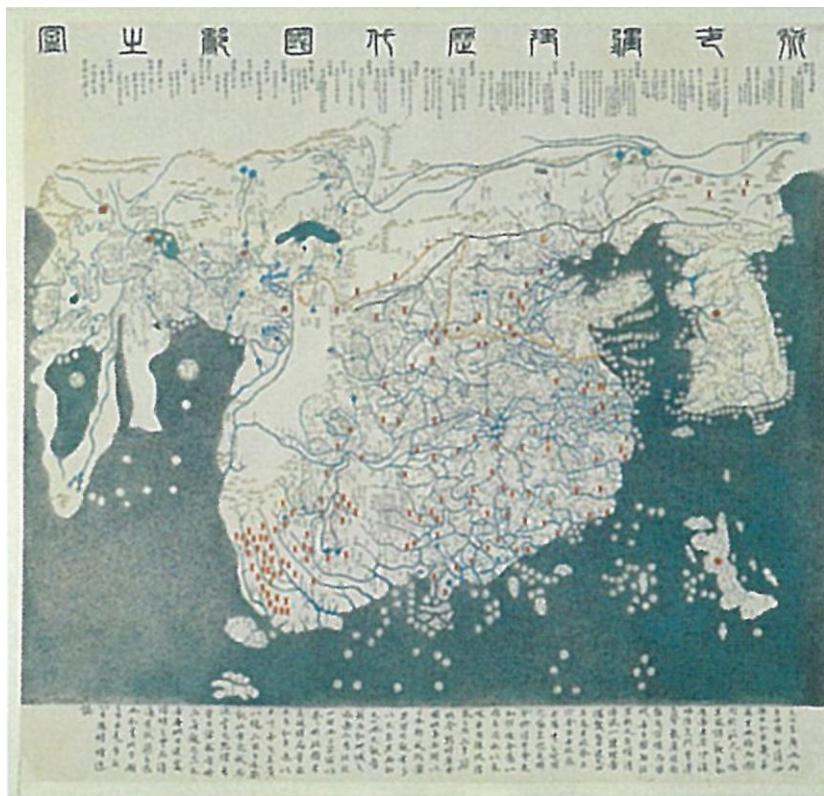
18) 한영우, 안휘준, 배우성(1999). 〈우리 옛지도와 그 아름다움〉. 서울: 효령출판. (2003). 108-109쪽 참조.

■  
제 3부

대표디자인

## 1. 혼일강리역대국지도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

- 채색사본. 권근, 김사형, 이무, 이회 등. 158.5×168cm 일본 류코쿠(龍谷) 대학소장.



### ■ 대표디자인 선정 배경

- 15세기 초의 세계지도로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도 중의 하나로 꼽히는데 당시 최고의 권력 기관이었던 의정부 고관들이 주도하여 만든 정책용 지도.
- 크기는 물론이고 그 방대한 영역과 세밀한 정보에 이르기까지 15세기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지도였다.
- 중화적 세계관을 따르면서도 조선을 당당하게 표현함으로써 자존감을 강조하였다.
- 여러 지도의 장점을 편집하여 새롭게 정보를 조직화 하고 시각화하는 독창적인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었다.
- 강이나 산맥, 장성, 도읍 등을 컬러로 코드화 하였고 그 표현이 양식화되어 있으면서도 회화적인 맛을 잃지 않고 있다.
- 고급 비단을 사용하고 있고 그 색감이나 서체 등의 조형적인 표현이 매우 미려하다.

- 바다를 표현한 방법이 상당히 독창적 패턴을 이루고 있다.
- 한 장의 지도 위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역사적 맥락을 함축해서 표현하고 있다.

## 2. 수선전도 首善全圖

- 김정호(추정). 1830년대. 목판본. 보물 853호. 101×74cm 고려대박물관 소장
- 상·중·하 세장으로 이루어진 판목(版木)으로 찍은 목판본 지도.



### ■ 대표디자인 선정 배경

- 목판본에서도 도면식 지도와 진경산수의 맥을 따르는 회화식 지도의 장점 을 모두 잘 표현할 수 있다는 자심감이 엿보인다.
- 삼각산(북한산)에서 뻗어내려 서울을 감싸고 있는 모든 산들이 마치 한 송 이 꽃이 활짝 피어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전형적인 개화식(외반식) 구도로 서울의 공간적 특징과 풍수지리와 음양오행 사상이 잘 표현되고 있다.
- 산맥과 하천, 도로를 마치 인체의 골격과 혈맥처럼 표현하고 있어 생동감 이 넘쳐난다.

- 한강을 실제와는 다르게 북쪽을 향해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서울을 하나의 소우주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제작자의 의도가 잘 드러난다.
- 목판본에 의한 대량생산을 전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계층의 폐쇄적 정보를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보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목판본임을 감안하여 하천과 도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하천은 쌍선으로 도로는 단선으로 표현하여 정보에 혼돈을 최소화하였다.

### 3. 도성도 都城圖

- 18세기 후기. 채색사본. 67.5×92cm. 서울대 규장각 소장
- 조선의 수도였던 한성부의 도성을 중심으로 그린지도.



#### ■ 대표디자인 선정 배경

- 도면식 지도와 회화식 지도의 이질적 요소의 장점을 잘 결합하여 18세기 조선의 수도인 한양 도성의 인문현상과 자연경관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다.
- 모든 산들이 마치 한 송이 꽃이 활짝 피어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전형적인 개화식(외반식) 구도로 서울의 공간적 특징과 풍수지리와 음양오행 사상이 잘 표현되고 있다.
- 겸재 정선(1676-1759)의 진경산수화풍의 맥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선 이후 진경산수화가 지도제작에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주요지점까지의 거리가 보(步)수로 나타나 있고 가옥이나 건물 그림 대신에 지명, 주요관청, 다리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 정보 전달 및 실용성까지

도 고루 갖추고 있다.

– 인문현상은 대부분 기호로 표현하고 있는데 청계천과 그 지류는 청색으로, 그 사이에 혈맥처럼 펼쳐진 도로망은 적색으로 대비시켰으며, 각 도로는 지선과 간선에 따라 그 선의 굵기를 다르게 표현하여 도시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  
제 4부  
후 기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정보 디자인의 유전자적 가능성을 고지도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지도는 미지의 공간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지도는 공간 정보를 전달하는 자의 의지가 강하게 개입되어 필요한 정보를 과장하거나 편집하는 과정을 통해 시각화하게 된다.

마츠오카 세이고는 인간은 원래 '정보의 동물'이며, '편집하는 동물'이라고 했다. 또한, 정보란 '편집되는 것'이며, '편집되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인은 정보가 더욱 역동적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고 '조합과정'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편집지식'을 위한 모험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지금 온라인 속에 획일화 되어 있는 지리 정보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스스로 정보를 편집하기보다는 정보가 자기 입맛에 맞춰져 있기를 원한다.

로버트 제이콥슨(Robert Jacobson)은 〈정보 디자인(Information Design)〉(1999)에서 정보 디자인의 방법과 디자이너의 역할과 대해 교화(edification)와 상호교환성(commutative)이라는 두 가지 연결된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edification'이 개인적인 깨달음의 과정이라면 'commutative'는 상호교환의 과정이다. 이러한 'edification'과 'commutative'를 이용해 정보를 상대방에게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정보 디자이너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정보 디자이너는 상대방에게 자신들의 생각을 억지로 주입하기보다는 생각을 교환해야 하며, 설득하기보다는 상대를 교화시켜야 한다. 하지만 사람마다 감각과 인지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보 디자인 결과물과 수용자 사이의 상호작용에는 광범위한 일반화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고지도는 무한한 디자인 유전자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위대한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연구는 선행 연구자들의 자료를 수집한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에 불과하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연구가 더욱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권동희(1998). 〈지리이야기(개정판)〉. 서울: 한울.
- 권용우, 안영진(2001). 〈지리학사〉. 서울: 한울.
- 김상근(2004). 〈세계지도의 역사와 한반도의 발견〉. 서울: 살림.
- 박성태(2004). 〈신 산경표〉. 서울: 조선일보사.
- 방동인(1974). 〈한국의 지도〉.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2001). 〈한국지도의 역사〉. 서울: 신구문화사.
- 서정철(1991). 〈서양 고지도와 한국〉. 서울: 대원사.
- 영남대학교 박물관(1998). 〈한국의 옛지도—도판편〉. 경북: 영남대학교 박물
- 원경렬(1991). 〈대동여지도의 연구〉. 서울: 성지문화사.
- 이상태(1999). 〈한국 고지도 발달사〉. 서울: 혜안.
- 이우형(1990). 〈대동여지도의 독도(讀圖)〉.
- 이찬(1991). 〈한국의 고지도〉. 서울: 범우사.
- 한영우, 안휘준, 배우성(1999). 〈우리 옛지도와 그 아름다움〉. 서울: 효형출판.
- 오상학(2005). 〈옛 삶터의 모습 고지도〉.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 현진상(2000). 〈한글 산경표〉. 서울: 풀빛.
- 피터 월버, 마이클 버크(2000). 〈인포메이션 그래픽스〉, 김경균(역). 서울: 디자인하우스, 2001.
- 안드레아스 슈나이더 외(2002). 〈정보디자인 : 정보에 얹힌 실태래 풀기〉, 김경균(역). 서울: 정보공학연구소, 2004.

### 논문

- 오상학(2001). “복판본 여지전도의 특징과 지리사상사적 의미” 한국지도학회 논문.
- 김경균(1991). “Visual Communication으로서의 Map Design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장현(2004). “정보 디자인의 관점으로 본 조선시대 의궤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동천(2005). “정보디자인 관점에서 본 〈동여도〉와 〈대동여지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지목록

no.	이미지제목	이미지출처	소장기관
그림 1	혼일강리역대국지도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	이찬. 〈한국의 고지도〉. 범우사.	일본 류코쿠(龍谷)대학.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2	조선방역지도 朝鮮方域之圖	문화재청 홈페이지	국사편찬위원회
그림 3	동국지도 東國地圖	오상학. 〈옛 삶터의 모습 고지도〉.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그림 4	천하도 天下圖	이찬. 〈한국의 고지도〉. 범우사.	윤형두(개인)
그림 5	천상열차분야지도 天象列次分野之圖	오상학. 〈옛 삶터의 모습 고지도〉.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그림 6	도성도 都城圖	한영우, 안휘준, 배우성. 〈우리 옛지도와 그 이름다움〉. 효형출판.	서울대 규장각
그림 7	수선전도 首善全圖	오상학. 〈옛 삶터의 모습 고지도〉. 국립중앙박물관.	고려대박물관
그림 8	청구도 靑邱圖	한영우, 안휘준, 배우성. 〈우리 옛지도와 그 이름다움〉. 효형출판.	국립중앙도서관
그림 9	여지전도 輿迺全圖	이찬. 〈한국의 고지도〉. 범우사.	숭실대학교박물관
그림 10	대동여지도 大東輿地圖	오상학. 〈옛 삶터의 모습 고지도〉. 국립중앙박물관.	서울대 규장각
그림 11	지구전후도	이찬. 〈한국의 고지도〉. 범우사.	성신여대박물관
그림 12	정읍현 군현지도	한영우, 안휘준, 배우성. 〈우리 옛지도와 그 이름다움〉. 효형출판.	영인본 〈조선후기 방지도〉
그림 13	광주평장동도	이찬 〈한국의 고지도〉. 범우사.	이찬(개인)
그림 14	울릉도외도	한영우, 안휘준, 배우성. 〈우리 옛지도와 그 이름다움〉. 효형출판.	서울대 규장각